

논문접수일 : 2013.12.19

심사일 : 2014.01.05

게재확정일 : 2014.01.26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특성 분석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Traditional Style of Fur or Leather
Clothes



주저자 : 고순희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Ko soon-hee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 장현주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Jang hyun-joo

J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2. 연구방법 및 유물내역

- 2.1. 문헌고찰
- 2.2. 실증고찰
- 2.3. 면담

3.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특성

- 3.1. 봉제특성
- 3.2. 장식특성
- 3.3. 소재특성

4.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제주도가 갖는 지형학적 특성, 자연환경, 사회·문화 환경으로 인하여 제주도민의 의생활은 육지의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물농사를 지어 의복소재를 마련하기 어려운 반면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와 말을 목축하였고, 노루, 오소리 등의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였다. 따라서 중산간지역의 목축과 수렵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에 의해 동물의 모피·피혁류를 이용하여 복식을 만들어 착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실증고찰, 면담 등을 통해 제주도민이 착용했던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특성을 봉제, 장식, 소재 특성으로 분석했다.

제주 모피·피혁류 복식의 봉제특성에 나타난 바느질기법은 코걸이, 감침질, 홈질, 온박음질, 휘갑치기이다. 이 중 코걸이방법은 제주에서 불리는 특이한 기법으로 특히 소가죽으로 만든 복식을 연결할 때 사용되며 가죽연결 부분이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제주만의 특색 있는 바느질 기법이다. 장식특성에서는 패치워크, 상침, 코걸이, 패치, 꼬임, 절개, 찌기 등이 사용되었지만 장식기법이 화려하지는 않았으며 제주만의 기능적인 복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식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소재는 제주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노루, 소, 개, 오소리, 말, 송아지 등 목축이나 사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이며,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사용되었으며, 모피·피혁류 재료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각 용도에 맞게 털이나 가죽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가죽과 모피, 펠트 등을 활용하여

패션문화상품 개발을 시도하고자한다.

주제어

모피·피혁류 복식, 코걸이방법, 패션문화상품

Abstract

Jeju has unique features in terms of geographical, natur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ainland. Instead of farming fibrous materials, the inhabitants residing along the mid mountains raised cattle or horses, to study Jeju' style of clothes of fur or leathers, literature and actual proofs study and interviews were implemented. decoration and materials by using the remains, revealing the correlation between Jeju.

Firstly, the style of Jeju's traditional fur or leather clothes included various needle work such as stitching by bamboo needles which was one of the unique needle works existing only in Jeju. This needle work was used for clothes of cow leather to protect pain when wearing them. Secondly, decorative techniques such as patchwork, decorative saddle stitching, a nose pendant, patch, twist, cutting and stamping were used in Korea traditional fur and leather garments. These decorative techniques are not colorful but show us beauty of decoration of Jeju in the process of designing Jeju functional clothes. Thirdly, The material used in Jeju traditional leather and fur garments came from cattle and wild animal such as roe deer, cows, dogs, badgers, horses, calves etc. This material were used in garments without processing. The materials were appropriately used in Jeju, considering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aterial. Based on the results of a follow-up study or research in a variety of leather and fur, felt, and take advantage of attempting to fashi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Keyword

Fur or Leather Clothes, bamboo needles, fashion cultural items

1. 서론

제주의 전통 복식은 제주 고유의 제주양식과 극히 한정된 육지의 문물교류를 통한 육지양식이 혼용되어 독특한 제주만의 의생활양식으로 형성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즉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 문화적 박탈감, 제주 독자적인 고유성 유지 등을 가져왔으며 이는 일반 의생활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특수노동복의 탄생을 가져왔다(고순희, 장현주, 2008).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테우리(목자), 화전민, 사냥꾼들은 사냥 또는 목축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개, 소, 사슴, 노루, 오소리 등의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복식을 만들어 입었으며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식의 재료로 사용했으며 이는 제주만의 독특한 모피·피혁류 의복 제작으로 이어졌던 것이다(고순희, 2012). 이러한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복식을 만들어 착용한 예는 제주도 관련 문헌 및 보고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유배생활 기간 동안 제주에 관해 기록한 문집 등에 나타나 있으며, 실제로 제주도내 박물관에 다수의 유물이 보존되고 있다. 또한 제주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목축업에 종사하거나 사냥 등의 일을 하였던 도민, 모피·피혁류 복식을 직접 착용하거나 보았던 경험이 있는 70세 이상의 도민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피·피혁류 복식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독특한 모피·피혁류 복식의 유형을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고찰, 실증고찰, 그리고 면담방법을 통해 조사한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봉제, 장식, 소재특성을 중심으로 조형성을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을 규명함으로써 제주 전통 복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복에 나타난 봉제기법 및 장식미 등을 도출하여 후속연구에서 제주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은 전승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가죽과 모피, 펠트 등을 사용하여 제주만의 특색 있는 패션상품 및 문화상품 개발을 시도할 것임을 밝혀둔다.

2. 연구방법 및 유물내역

본 연구는 제주도 관련 문헌 및 보고서, 선행연구

를 중심으로 문헌고찰과 제주도내 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되어 있는 모피·피혁류 복식 유물을 중심으로 한 실증고찰을 병행했다. 그리고 제주도내 거주하여 오랜 기간 목축을 하거나 또는 모피·피혁류 복식을 접하거나 보았던 경험이 있는 70세 이상의 도민, 사냥꾼과의 면담도 병행했으며 구체적인 고찰방법과 유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물자료 용어는 제주도민이 일상적으로 주로 불렀던 용어로 표기하였다.

2.1. 문헌고찰

『三國志』 『高麗史』 『耽羅巡歷道』 『濟州道誌』 등 제주도 관련 문헌과 보고서, 선행연구와 유학자들의 유배생활 기간 동안 제주에 관해 기록한 문집 『濟州風土記』 『譯註 耽羅志』 『南槎日錄』 『北軒集』 『憂菴先生文集』 『靜軒瀛海處坎錄』 『耽羅雜詠』 『耽羅錄』 『瀛洲風雅』 등을 중심으로 총 13편에 나타난 기록을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역사와 제주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나타난 모피·피혁류 복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2.2. 실증고찰

제주도내 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피·피혁류 복식 유물자료를 중심으로 두식, 의복, 족의, 주머니류로 나누어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실증고찰에 사용된 박물관 자료의 목록은[표 1]과 같다.

유물자료	유물 수	소장처
감티	4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벌립	14점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웃	2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가죽발레	1점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버선	11점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가죽신	11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주머니류	4점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합 계	47점	제주도내 박물관

[표 1] 박물관 유물자료 목록

두식		의복		
				
오소리 감티	털벌립	개가죽 옷	소가죽 옷	가죽발레
제주특별자치도 민속 자연사박물관 소장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민속 자연사박물관 소장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주머니 류		족의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귀주머니	가죽버선	국쉬신	갑실신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1] 박물관 유물자료

본 연구에서는 모피·피혁류 실증유물 총 47점 중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이 나타난 유물 17점을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그림 1]은 박물관에 소장되어진 모피·피혁류 복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모피·피혁류 복식의 용어는 대부분 제주도민에 의해 오랫동안 불렸던 것으로 모자의 일종인 ‘감티’는 태양 없는 모자로서 털이 밖으로 보이게 하며 각이 지지 않게 만든 방한모이며 제주방언으로 ‘가죽감티’, ‘가죽감태’라하며, ‘털벌립’, ‘병거지’는 모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전립’이라고 하며, 전립은 조선시대 무관이 쓰던 모자의 일종이다. 옷의 일종인 ‘가죽발레’는 발목에서 무릎 또는 허벅지까지 감싸는 형태로 ‘덧바지’를 말하며, 신발 중 ‘갑실신’은 가죽을 실처럼 잘라 말려서 만든 형태이며, ‘국쉬신’은 동물의 가죽을 잘게 오려 날에 꿰어서 창으로 삼아 만든 짚신 형태의 신을 말하며 제주에서는 ‘뽕신’이라고도 불린다.

2.3. 면담

모피·피혁류 복식을 주로 착용하였던 제주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로 목축을 하거나, 모피·피혁류 복식을 실제로 착용한 적이 있거나, 착용자의 모습을 보았던 70세 이상의 도민, 사냥꾼(제주에서 ‘사냥바치’

라 함)등을 대상으로 제주시 김익수 (1937년생) 외 16명과 서귀포시 고두진 (1954년생) 외 21명으로 총 39명을 면담하여 고찰하였다.

3.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특성

제주도민이 착용했던 모피·피혁류 복식에 관계 기록된 문집과 민담을 중심으로 모피·피혁류 복식 착용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이상의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두식으로는 털병거지, 가죽감태가 있으며, 의복으로는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 그 외 가죽발레, 가죽버선 등의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생이 털병거지를 쓰기도 했으며 개, 노루,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감태는 지역에 따라 양반을 제외한 천한 사람이 쓰기도 했고 신비부터 미친한 군졸까지 모든 사람이 착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옷은 흰 개가죽, 누런 개가죽으로 만들어 입었으며 가죽버선은 소가죽이나 노루, 사슴가죽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 곳곳에서 모피·피혁류로 만든 복식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배인과 유배기간	문집 내용	출처
이건(移建) (1623~1649)	-[생략] 산에 올라가는 자는 여름철에 비록 가족옷 두 겹을 껴입더라도 그 추위를 견딜 수 없다.	『濟州風土記』
이원진(二元鎭) (1651~1653)	-[생략] 5월까지 눈이 내려 쌓여서 8월까지 남아 있으니 가족옷 을 껴입어야 한다.	『譯註 耽羅志』
이증(李增) (1679~1680)	-남자들은 길가에서 우뚝 바라보며 남정들은 모두 가족옷 에 가족모자 를 했고… -[생략] 가족감티 , 초신, 갈중이옷 자갈발과 초가지붕 영성한 사립문…(하락)	『南槎日錄』
김춘택(金春澤) (1674~1720)	- 털가족 으로 만든 옷 거리낌 없는 옛날풍속…(하락) -유생은 털빙거지 를 쓰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北軒集』
남구명(南九明) (1712~1715)	-[생략] 산에서는 짐승잡고 물에서는 물고기 잡고 털가족 으로 몸을 감쌌네	『憂菴先生文集』
조정철(趙貞喆) (1776~1800)	-눈의<조천을 와산리> 10리길 (중략) 척박한 밭 온통 보리와 콩, 개가족 옷 …(하락) -정의사람들은 물론 고을선비, 교리(校吏), 노예, 미천한 군졸까지 황우의 털빙거지 , 오소리 모자 를 항상 쓴다. (중략) 흰개 가족바지 , 누런 개가족 같은 것은 나들이 옷에 건준다. -“적거 중 (중략) 사슴가족 버전 ”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靜軒瀛海處坎錄』 『耽羅雜詠』
신광수(申光洙) (1764)	-제주의 동쪽 가마로 언덕에서 기다리는 세 관리 가족 옷 입고 배를 맞는다. - 가족 옷 입은 남녀들 모두 방아 찧는 노래 부르네. -[생략] 성사 타고 온 한양 사신 돌아갈 기억 없이 가족 옷 에다 …(하락) -[생략] 테우리는 가족 옷 입고 산을 ‘오름’이라 하네 -[생략] 가족 옷 입은 섬사람들 당연히 크게 놀라네 -줄줄이 수십 명 무리지어 모두가 허투루 다룬 누런 개가족 걸쳤네…(하락)	『耽羅錄』
김창현(金昌鉉) (1827~1875)	- 산노루 가족버선 에 개가족 옷 입고 마른 억새풀에 걸터앉아 억지로 위엄지어 버슬길에 나간 일 없이 양반이라 뽐내기만 힘주어 하는 자랑 별감 풍헌 지냈던 일.	『瀛洲風雅』

[표 2]모피·피혁류 복식에 관한 문집

민담 내용
-발을 사니까 기쁘고 자랑하면서 이듬해 봄에 기르는 마소를 풀어 놓아먹이 주라고 하니 뜻밖에 어떤 가족감태 쓴 할아버지 가지팡이를 짚고 와서(생략) (1958년 6. 3. 제주도 웅담동 70세(남) 김태화 님)
-표선면 토산리 곁에 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들은 가족감태 쓰는 테우리(목자). 가족감태 는 누루가족 이나 개가족 으로 만들어 쓰며 양반들은 쓰지 않고 천한사람만 쓴다. (1960. 1. 20. 서귀포시 성산면 성산리 71 세 남 김두복 님)
-한라산이 높아 겨울에 사냥꾼이나 테우리(목자)들은 가족옷 에 가족감태 , 가족발레 차림이 아니면 추워서 다니질 못한다. (1960. 10. 5. 서귀포시 토평리 62세(남) 김창규 님)
-시아버지는 당신 아들보다 더 생각 하면서 물에 젖지 않도록 소가족 으로 가족버선 도 만들어 신겨 주었다. (1961년 5. 18. 서귀포시 성산면 고성리 82세(남) 정경룡 님)
-봄에는 매매한 발을 일구는데 어떤 가족감티 쓴 노인이 와서 남의 발을? (1960년 6. 4. 서귀포시 성산면 난산리 70세(남) 김창수 님)
-백정이 바친 말가족, 소가족으로 가족신 을 만들어 신도록 하니 큰 일을 하게되어 그 공으로 백정은 면천을 받게 되었다. (1958년 4. 12. 대정읍 일파리 92세(남) 강덕영 님)

[표 3]모피·피혁류 복식에 관한 민담

즉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 곳곳에서 모피·피혁류로 만든 복식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실증고찰 및 면담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봉제특성, 장식특성, 소재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조형성 분석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패션상품 및 문화상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1. 봉제특성

제주지역에서 모피·피혁류 복식을 주로 착용했던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하거나 실제로 모피·피혁류를 착용한 경험이 있거나 착용자를 본 경험이 있는 70세 이상의 도민, 사냥꾼 등을 중심으로 면담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종류	면담내용	면담자
가죽옷	-가죽을 다루거나 가죽복식을 만드는 일은 주로 남자들이 하였기 때문에 바느질이 비교적 거칠고 영성하다. -일반실을 구하기 어려워 가죽옷 을 만들 때 가죽실을 사용하였다. 일반실이 있어도 실이 얇기 때문에 가죽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 가죽옷 을 만들 때 바늘대용으로 뽕족한 쇠나 대나무 를 깎아서 사용했다.	고두진(1954년생) 김인순(1933년생)
가죽버선 ·국취신	- 가죽버선 의 발목과 발 부분은 가죽으로 만들어 가죽실로 봉제하였으며, 발목 윗부분은 광목이나 무명(미녕)을 사용하여 무명실을 여러겹 꼬아 봉제하였다. 그리고 가죽과 직물 연결 부분은 가죽실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훔질하였다. - 코걸이방법 이란 송곳으로 가죽에 구멍을 낸 뒤 가죽실을 꿰면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가죽이 겹치는 부분이 두꺼워지거나 실에 닿았을 때 불편함을 덜기위한 바느질 방법이다. 주로 가죽버선을 만들 때 사용된다. - 국취신 의 신발창은 가죽, 바닥은 고무로 만든다. 그 사이에 신깔을 넣어 가죽실로 튼튼하게 훔질하여 고정한다.	오영종(1929년생) 고춘일(1933년생) 고한구(1936년생)
털벌립	- 털벌립 양태 끝부분에 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휘갑치기를 하였다.	진성기(1936년생)
가죽실	- 가죽실 제작방법은 소나 말의 부드러운 배, 겨드랑이 부분의 가죽을 날카로운 칼을 이용하여 자를 대고 실처럼 얇게 60cm 길이로 잘라서 사용한다. -가죽실이 사용되는 곳은 가죽버선과 가죽신, 주머니를 연결할 때 사용된다.	고한구(1936년생) 고두진(1954년생)

[표 4]모피·피혁류 봉제특성에 관한 면담내용

[표 4]의 면담결과를 중심으로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봉제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복식의 종류로는 가죽옷, 국취신, 가죽버선, 주머니류 등이 있으며, 둘째, 가죽옷은 대체적으로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 남자이며, 소재자체가 딱딱하고 무거우므로 바느질 또한 비교적 거칠고 영성한 점이다. 셋째, 가죽옷을 제작할 때는 뽕족한 쇠나 대나무를 깎아서 연장으로 사용했으며 가죽옷을 제작하는 실은 소, 말가죽의 배, 겨드랑이 부분의 가죽을 얇게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끔 두꺼운 면실을 사용하기도 했다. 넷째, 가죽옷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방법은 훔질, 휘갑치기, 온박음질, 코걸이방법 등이 있었다. 이상의 면담조사 결과와 제주도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의 실증고찰 결과를 중심으로 바느질의 종류 및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봉제기법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가죽옷 2점, 감티 1점, 털벌립 1점, 가죽버선 5점, 가죽신 1점, 주머니류 1점 등 총 11점의 유물을 조사한 결과 일반실로 제작한 경우와 가죽실로 제작한 경우가 있었다. 실증적 고찰 결과 가죽실을 사용한 경우보다 일반 두꺼운 면실이나 실을 두 겹으로 사용한 경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가죽실을 제작하는 것 또한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실을 사용해서는 감침질, 훔질, 온박음질, 휘갑치기 등의 바느질을 했으며 가죽실을 사용해서는 훔질과 코걸이방법의 바느질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실을 사용해 제작한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된 바느질방법은 감침질이다. 즉 오소리 감티의 연결부

분, 가죽옷의 솔기연결부분과 배래연결부분, 주머니 등과 같이 가죽을 연결하거나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을 튼튼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감침질을 사용했다. 훔질은 개가죽옷의 깃 가장자리 바이어스처리부분, 가죽버선의 가죽과 면 연결부분, 국취신의 바닥부분 등에 주로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장식 상침 기능도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늘땀이 매우 규칙적인 점이 특징이다. 온박음질은 개가죽옷의 겨드랑이 안쪽부분, 가죽버선의 뒤축부분에 사용하여 솔기가 터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마무리하는 역할로 사용되었고, 휘갑치기는 털벌립의 양태 끝부분에 잔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가죽실은 제작법 또한 특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한구(1936년생)는 가죽실 제작방법에 대해 “소나 말 가죽의 부드러운 배, 겨드랑이 부분의 가죽을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자를 대고 실처럼 얇게 자른 뒤 60cm길이를 잘라서 사용했다”고 하였는데 버선과 가죽신, 주머니를 만들 때 또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죽실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죽실을 사용한 바느질방법으로 훔질과 코걸이방법이 있으며, 훔질은 가죽버선의 가죽과 면 연결부분이나 앞트임부분, 국취신 바닥부분 등에 사용했으며 이 방법 역시 장식 상침 기능을 할 정도로 균일하게 바느질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가죽실을 이용한 바느질방법으로 특이한 코걸이방법이다. 이 코걸이방법에 대해서는 오영종(1929년생), 고춘일(1933년생), 고한구(1936년생)는 “가죽을 연결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코걸이방법이 있다”고 했다. 코걸이방법이란 우산살을 지탱하는 철사나 송곳 등을 이용해서 가죽에 구멍

실의 종류	바느질기법	봉제 부분		
일반실	감침질			
		개가죽 옷 (깃 안쪽 부분)	오소리 감티 (안쪽 연결부분)	소가죽 옷 (배래 부분)
	흙질			-
		개가죽 옷 (바이어스 처리부분)	가죽버선 (가죽과 면 연결부분)	
	온박음질			
		소가죽 옷 (겨드랑이 부분)	가죽버선 (뒷부분)	가죽버선 (뒷부분)
	휘감치기		-	-
		터버림 (양태 가장자리)		
가죽실	흙질			
		가죽버선 (가죽과 면 연결부분)	국취신 (바닥부분)	가죽버선 (앞트임 부분)
	코걸이			-
		가죽버선 (바닥부분)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그림 2]모피·피혁류에 사용된 봉제기법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소장; 제주대학교박물관소장;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종류	면담내용	면담자
개가죽 옷	-가죽과 등 부분에 모질이 좋은 가죽을 달았는데 이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영종(1929년생) 고한구(1933년생) 송재희(1933년생)
	-가죽과 등 부분에 모질이 좋은 가죽을 달았는데 이는 오늘 날 다른 천을 붙이는 장식효과다	
	-개가죽의 크기가 작아서 조각 조각내어 연결한 것 같았으며, 멋으로 장식했던 것 같다.	
가죽신	-가죽신의 신깁에 칼집을 일정하게 넣었는데 이것은 둥근 발모양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고한구(1936년생)

[표 5]모피·피혁류 장식특성에 관한 면담내용

을 낸 뒤 한 줄의 가죽 실을 오늘날의 신발 끈을 꿰듯이 한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연결해 가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죽이 겹치는 부분이 두꺼워지거나 살에 닿았을 때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죽을 굴곡 없이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보기에도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장식이라 생각된다. 이 방법은 실제로 가죽버선의 바닥부나 부시주머니의 테두리 연결부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3.2. 장식특성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서 패치워크, 상침, 절개, 패치, 휘감치기, 코걸이기법, 짚기 등 장식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식방법은 복식을 제작할 때부터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식성을 표현한 예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장식성에 관한 면담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의 면담결과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으로 인해 복식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했으며, 모피·피혁 복식을 착용한 이유가 거센 추위를 막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면담결과에서도 복식에 장식효과를 설명한 비중이 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모피·피혁류 복식 중 가죽옷, 가죽버선, 갑실신과 국쉬신, 부시주머니에서 몇 가지 장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제작할 때부터 장식을 목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

장식기법	봉제 부분		장식기법	봉제 부분
꼬임			패치 워크	
	갑실신 (옆 부분)	갑실신 (바닥부분)		개가죽 옷
상침			절개	
	가죽버선 (가죽과 면 연결부분)	가죽버선 (가죽과 면 연결부분)		국쉬신 섶코
코걸이			짚기	
	가죽버선 (바닥부분)	직사각형 부시주머니		털벌림
패치				-
	가죽버선 뒤축	가죽버선 (앞트임 부분)		-

[그림 3]모피·피혁류에 사용된 장식기법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소장; 제주대학교박물관소장;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으로 장식효과를 주는 예라 할 수 있다[그림 3]. 가죽을 복식에 사용한 것은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추위와 더위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제주만의 독특한 의생활양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주도 중산간지역인 한라산은 추운 비바람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의 복식을 갖추어 입어야 했으므로 보온성이 뛰어난 모피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입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친 재질의 가죽을 복식에 사용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방한용으로써의 기능적인 면 외에 미적인 감각을 고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장식기법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유물 중 가죽옷 1점, 털벌립 1점, 가죽버선 4점, 가죽신 3점, 주머니류 1점 총 10점의 유물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가죽옷 중 개가죽옷의 경우 눈에 가장 잘 띄는 앞 가슴 부분과 등 부분에 비교적 결이 곱고 광택이 나는 털 조각을 선정하여 사용하였고 가죽을 조각조각 연결하는 패치워크기법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가죽버선의 경우 가죽과 면 누비를 연결하는 부분에 가죽 끈을 사용해서 고운 홈질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상침 효과로도 볼 수 있으며, 헤어지기 쉬운 뒤축부분에 가죽 2장을 덧대어 튼튼하게 보강하면서도 나뭇잎모

양으로 재단하여 아름답게 패치 장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식 중 털벌립의 경우 양태 끝부분에 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휘갑치기 기법과 양태 부분에 줄무늬를 찍어 장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죽버선 바다부분과 직사각형 주머니의 양 끝을 연결할 때 가죽실을 이용하여 코걸이기법으로 규칙적이면서 탄탄한 동시에 장식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가죽신의 경우 갑실신에서 가죽을 자르고 꼬아서 만든 형태와 국취신에서 가죽을 절개하여 기하학적 형태를 만드는 유형이 있는데 모두 절개기법을 사용해서 장식효과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3. 소재특성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가죽은 제주에 많이 서식하는 노루, 소, 개, 오소리, 말, 송아지 등 목축이나 사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이다. 갑티의 경우 오소리가죽이 가장 고급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가죽옷에는 개와 소가죽이 사용되었다. 이 중 소가죽은 목축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죽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고 크기 또한 컸기 때문에 한 장으로도 충분히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으며, 그 밖의 가죽신, 가죽버선, 주머니류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종류	면담내용	면담자
갑티	-오소리갑티는 털이 촘촘하게 나 있어 다른 가죽에 비해 따뜻하고 얇고 가볍다.(보온성이 좋음) -오소리털은 개가죽, 소가죽보다 따뜻하였기 때문에 갑티의 재료로 사용했다. -털벌립은 검은 소털과 황색 소털을 사용했으며 검은 소털은 고급품이었다. -가죽갑티는 검은색 소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바람을 막아주며 보온성이 좋다. -갑티는 오소리(오로)가죽과 노루가죽으로 만들었다.	송재희(1933년생) 외 5인
가죽옷	-가죽옷의 소재는 소가죽, 노루가죽, 개가죽, 송아지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말가죽옷은 잘 찢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개가죽옷에 사용된 가죽은 누런개와 흰개의 가죽을 사용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누런개를 사용하였다. (흰개 가죽은 가격이 비쌌음) -소가죽으로 바지도 만들어 입었으며, 바지 형태는 갈중이(사포바지) 형태이다. -노루가죽은 얇고 부드러우며, 가볍고 따뜻하며 방수효과가 좋은 반면 털이 뽀뽀하고 굵기 때문에 털을 제거한 뒤 사용했다.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워서 옷으로 만들어 입지 않았으며, 개가죽은 질기고 가볍고 따뜻하였기 때문에 옷으로 만들어 입었으며 때론 이불로도 사용했다. -개가죽옷은 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방수복으로, 고인을 묻으러갈 때 방한복으로, 눈이나 비가 올 때 비옷대용으로 착용하였다. -가죽옷은 소가죽의 경우 두껍고 무거워서 사용하지 않았고 부드럽고 가벼운 송아지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소가죽옷은 비오는 날 우비대용으로 착용하였다.)	오문복(1933년생) 외 10인
가죽발레	-가죽발레는 말, 노루, 소, 개가죽으로 만들어 냉기를 차단해준다. -가죽발레는 대부분 노루가죽으로 만들어 얇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비울 때 신으면 방수효과가 있으며 따뜻하였다.	오영종(1929년생) 외 4인
가죽버선 · 가죽신	-가죽버선 재료는 소가죽, 노루가죽, 개가죽을 사용하였으나 대부분 소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보온성이 좋다.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워서 대부분 신발만 만들어 신었다. -가죽신의 '신깍'(발등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사용되었다.	김익수(1937년생) 외 7인

[표 6]모피·피혁류 소재특성에 관한 면담내용

가죽을 연결하는 가죽 실을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

중국 당나라의 문헌에 “제주에서 개를 사육하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개가죽으로 장구, 꼬리로는 비, 털가죽으로 방한용 외투와 모자 등을 만들었다”는 기록(김성식, 2008)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개가죽을 복식에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냥꾼들이 개가죽 옷을 입고 사냥을 하다가 밤이 되어 야숙을 할 때면 가죽옷만 걸치고 잠이 들어도 추운 줄 모를 정도로 방한효과가 뛰어나 사냥꾼들의 필수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는 일본 관동군의 방한복과 방한화를 만들기 위해 도견부(屠犬部)를 설치하고 개가죽 공출령을 전국에 내렸는데 이로 인해 대동아전쟁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서 연간 30~50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되었다는 기록(이상오, 1971)이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개가죽을 사용하여 옷과 신발은 많이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중 감티, 가죽옷, 가죽발레, 가죽버선, 가죽신 등이 있으며 용도별 소재특성에 관한 면담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의 면담결과에서 종류가 다른 동물의 털이나 가죽은 복식의 소재로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가죽은 가볍고 따뜻하며 질긴 특성을, 소가죽은 두껍고 무거워서 송아지가죽 외는 의복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특성을, 노루가죽은 가죽이 얇고 부드러우며 가볍고 따뜻하지만 털이 뺏겨서 굵기 때문에 털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소리 털은 촘촘하고 풍성하며 가볍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개가죽이나 소가죽보다 보온성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감티, 가죽옷, 가죽신 등 복식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가죽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감티는 머리에 착용하는 것이므로 가죽 중에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매우 우수한 오소리 털을 주로 사용했으며, 노루가죽을 사용할 경우는 털이 굵고 뺏겨지기 때문에 털을 제거한 가죽상태로 제작했다. 가

죽옷이나 가죽발레에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방수, 방풍, 방한효과를 위해 소, 송아지, 개가죽을 주로 사용했으며 바지에는 노루가죽, 개가죽을 사용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죽신이나 가죽버선, 주머니류에는 주로 의복을 만들고 남은 가죽을 사용해 만들었으며, 오래 신을 수 있는 질긴 가죽인 소가죽이나 가볍고 따뜻하면서 방수효과가 좋은 노루가죽 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소리 털의 경우는 보온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오소리 사냥이 힘들 뿐 아니라 가죽의 크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의복으로 제작하기에는 공급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 가죽의 경우에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러 장을 모아서 의복 한 벌을 제작하기에 많은 양의 개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 7]은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용도별로 사용된 소재의 종류를 문헌고찰, 실증고찰, 면담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문헌·면담·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면담·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문헌·면담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실증조사에서만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면담조사에서만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식의 용도별로 사용된 모피나 가죽 소재의 종류를 살펴보면 오소리털, 노루가죽, 소털과 소가죽, 말가죽, 송아지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문헌·면담·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오소리 털을 사용한 가죽감티, 노루가죽을 사용한 가죽발레 및 가죽신, 소의 털을 사용한 두루마기 및 소가죽 소재의 가죽신과 가죽버선, 개털 소재의 개가죽두루마기가 있었다.

면담·실증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노루가죽을 사용한 가죽감티와 가죽버선

복식 종류	오소리		노루		소		개		말		송아지	
	모피	가죽	모피	가죽	모피	가죽	모피	가죽	모피	가죽	모피	가죽
감티	●			◎	■		◎					
두루마기	■			◎	●		●	■			◎	
발레				●		■	■			■		
신				●		●						
버선				◎		●	■			■		
주머니류				○		○						

[표 7]모피·피혁류 복식의 용도별 소재종류

면담내용	면담자
-들깨기름, 돼(돼지)기름 사용하여 문지르면 가죽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	고춘일(1933년생)
-음력 1월에 동네에서 소를 추렴한다. 소가죽은 땅에 묻었다 밟아서 기름을 제거하고 재로 문지르며, 돼지 기름(돼지기름)으로 발라주면 부드러워진다.	정신생(1921년생)
-가죽을 사방에서 당겨서 못으로 박고 딱딱해지면 돼지기름(돼지기름)으로 계속 문질러주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	김인순(1933년생) 송재희(1933년생)
-가죽은 딱딱해지면 돼지기름(돼지기름)을 발라 가죽을 문지르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돼지기름은 솔뚜껑에 넣어 끓인 뒤 굳혀서 사용한다) -가죽은 바닥에 불을 때서 가죽이 불에 닿게 한 뒤 가죽의 기름을 녹이고 얇게 만들며, 털이 붙어 있는 쪽은 위로 올라가 털이 타지 않는다. 이것을 각 모서리에 못으로 고정하여 잡아당겨 그늘에 말린 뒤 돼지기름을 솔뚜껑에 넣어 끓이고 굳혀 가죽부분에 골고루 문질러주면 직물처럼 부드럽게 된다.	고한구(1936년생)
-돼지기름(돼지기름), 유기름(들깨기름)을 발라주면 부드러워진다.	오영종(1929년생)
-가죽부분만 소금을 뿌려준다.(방부제 역할을 함)	고두진(1954년생)

[표 8]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모피와 피혁 관리법에 관한 면담내용

이 있었으며, 문헌·면담조사에서 모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노루가죽을 사용한 가죽발레, 개의 털을 사용한 가죽감티, 송아지 털을 사용한 가죽옷이 있었다.

따라서 감티에는 오소리털, 노루가죽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두루마기에는 소털, 개털, 송아지털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죽발레에는 노루가죽이 사용되었으며, 가죽신에는 소가죽이 사용되었으며, 가죽버선에는 소가죽과 노루가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이나 면담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증조사에서 주머니류에 노루가죽과 소가죽을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헌과 면담조사를 한 결과 소와 개의 털을 그대로 제작한 의복 즉 가죽이 아닌 털이 부착된 상태의 의복을 소가죽 옷 또는 개가죽 옷으로 흔히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도에는 오소리와 송아지는 털, 노루와 말은 가죽, 소와 개는 털과 가죽이 모두 복식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사냥이나 목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죽의 종류나 양이 달랐으므로 각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피나 피혁으로 용도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해 복식을 만들어 입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표 8]은 모피·피혁류의 관리법에 관한 면담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8]의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에서는 가죽 손질을 위해서 가죽을 땅에 묻어두거나 재를 이용하여 가죽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하였다. 가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돼지기름(돼지기름), 들깨기름이 사용되었으며, 가죽 보관을 위해서는 소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가죽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기 때문에 돼지기름(돼지기름)을 솔뚜껑에 넣어

끓인 후 굳혀서 가죽에 수시로 발라주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양약이 없을 당시 돼지기름(돼지기름)은 약으로 사용했는데 소나 말 등 상처 난 부위에 돼지기름을 발라두어 3~4일지나면 좋아졌으며 뱀에 물릴 때도 사용했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들깨기름을 가죽부분에 발라주면 부드럽게 오래도록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두진(1954년생)의 면담에서 “가죽을 보관 할 경우는 좀과 같은 세균을 막기 위해서 가죽부분에 소금을 뿌렸다”고 했는데 이때 소금의 역할은 수분을 빼고 세균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부패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천연 방부제 및 해독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독특한 모피·피혁류 복식의 유형을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 고찰, 실증고찰, 면담방법을 통해 조사한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즉 가죽감티, 털방거지, 가죽옷, 가죽발레, 가죽버선, 가죽신, 주머니류 등에 나타난 봉제, 장식, 소재특성을 중심으로 조형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봉제특성을 살펴본 결과 코걸이, 감침질, 홈질, 온박음질, 휘감치기 등 봉제기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코걸이방법은 제주에서만 사용된 특이한 방법으로 우산살을 지탱하는 철사나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도구를 이용해 가죽에 구멍을 낸 뒤 가죽 실을 신발 끈 꿰듯이 한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연결해 가는 방법이다. 특히 소가죽으로 만든 복식에 사용되었으며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쉽게 해

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죽을 겹쳤을 때 두꺼워지고 피부에 닿았을 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가죽 실을 사용해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제주만의 특색 있는 바느질방법이다.

두 번째, 장식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피·피혁류 복식을 착용한 이유가 추위를 막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장식특성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기법이 장식기법으로 표현된 예가 있다. 즉 가죽옷, 털벌립, 가죽버선, 갑실신과 국쉬신, 부시주머니에서 패치워크, 상침, 코걸이, 패치, 꼬임, 절개, 찍기 등의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 개가죽 옷은 작은 개가죽을 조각조각 연결한 결과 패치워크의 효과장식을 볼 수 있으며 가죽버선에서 가죽과 먼 연결 부분에 사용한 상침장식, 가죽버선의 바닥부분과 직사각형 부시주머니에 사용된 코걸이방법과 버선 뒤축에 나뭇잎 모양의 가죽을 오려 잘 헤어지는 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하면서 장식했던 패치장식이 있었다. 그리고 갑실신과 국쉬신의 경우 가죽을 자르고 꼬아서 만들거나 절개한 방법이 있었으며, 땃땃해 보이는 털벌립에 무늬를 찍어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장식기법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주만의 기능적인 복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장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소재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제주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노루, 소, 개, 오소리, 말, 송아지 등 목축이나 사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이다. 이러한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사용하였으나 기본적인 손질과정을 거칠 뿐 특별한 가공은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러운 상태로 복식에 사용되었으며, 모피·피혁류 재료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복식의 각 용도에 맞게 털이나 가죽을 달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감티는 머리에 착용하는 것이므로 가죽 중에서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매우 우수한 오소리 털을 주로 사용했으며, 노루가죽을 사용할 경우는 털이 굵고 뽀뽀하기 때문에 털을 제거한 가죽상태로 제작했다. 의복에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방수, 방풍, 방한효과를 위해 소가죽, 개가죽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신발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신을 수 있는 재료로 소가죽이 사용된 반면 말가죽은 잘 찢어지기 때문에 의복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에서 모피·피혁류 복식에 사용된 소재는 제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실용적이면서 방한 소재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은 중산간 지역에서 주로 착용하였던 것으로 머리에는 오소리가죽, 소가죽으로 만든 감죽감티나 털벌립을 쓰고 가죽

옷은 개가죽 또는 소가죽으로 만들어 입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버선은 노루가죽, 소가죽으로 만들어 그 위에 가죽신이나 짚신을 착용하였으며 어떠한 강추위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복식이었다. 따라서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의 복식으로써 완성된 형태와 위상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그 기반을 두고 제주의 전통 문화와 연결되면서 제주지역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로 중산간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장식기법에 있어서는 한국 복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 사용되어 한국복식사내의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으로서의 연관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봉제, 장식, 소재특성 등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및 다양한 패션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순희, 장현주 (2008). 제주전통 털소재 복식의 유형과 특성. 『복식』, 58(9), 115.
- 이상오 (1971). 『수렵비화』. 서울 : 박문사.
- 진성기 (2011). 『제주말로 캐넌 올레집 옛말 (1)』. 도서출판 : 디딤돌.
- 김의숙 (1991). 「濟州道 牧者服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순희 (2012).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 연구」,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봉옥 역 (1994). 『南宦博物』. 출판사 : 제주문화원.
- 홍기표 역 (2007). 『南溟小乘』. 제주문화원.
- 박선희 (1998). 고대 한국의 복식재료 -가죽과 모직-. 『단국사학회』, 31(1), 81-133.
- 김익수 역 (2001). 『南槎日錄』. 제주 : 제주문화원.
- 고부자 (1995). 「濟州道 衣生活의 民俗學的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우 역 (2007). 『濟州古記文集』. 출판사 : 제주문화원.
- 김일우 역 (2007). 『濟州風土錄』. 출판사 : 제주문화원.
- 임제 (1958). 『濟州古記文集』. 제주 : 제주문화원.
- 임제 (1958). 『南溟小承』. 제주 : 제주문화원.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濟州道志 第7卷』. 제주도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 한국문화재관리국 (1986). 『한국 민속 종합조사 보고서 17권 의생활 편』.
- 김성식 (2008. 6. 11). 충견과 복지부동. 「환경컬럼」, 1. [http:// www.musimi.com](http://www.musimi.com)